

# 어명소 제2차관, '설 택배 배송 차질 없도록 만전' 강조

- 11일 택배터미널 찾아 설 특별관리대책 추진상황 등 직접 점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1일 10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한진 남서울 택배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대비 택배 특별관리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동절기 사고 예방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하였다.
  
- 어 차관은 한진 관계자로부터 설 특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, “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특별관리기간 동안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”고 당부하였다
  
- 이어, 택배 상·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 살펴본 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“특별관리기간에는 물량 증가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만큼, 심야배송 등 무리한 작업은 삼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”을 거듭 당부하였다.
  
- 마지막으로, 어 차관은 택배 종사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방한용품 구비와 미끄럼 사고 등 동절기 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.

2023. 1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